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또래 관계간의 연계 : 인지 표상 모델의 매개 역할*

Linkage Betwee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 Cognitive Representational Models as Mediator

나 유 미**
Rah, Yumee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links among parents' interaction styles, their children's representational models of parents and peers, and children's peer acceptance and friendship quality. Forty-seven fourth grade children and their parents (47 mothers and 47 fathers) were observed during discussion interaction, and, one year later, 119 children (63 boys, 56 girls), including the original sample, were interviewed to assess representational models and peer competence. Parents' interaction styles predicted children's representations of parents, moderating the effect of each parent's style, children's representations of peers mediated the relations between the representational models of mothers and their peer acceptance.

Key Words : 상호작용(interaction), 인지표상(cognitive representation), 또래관계(peer relationships)

*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심리학과, Social Development Project의 database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음.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I. 서론

아동의 또래 관계에 미치는 가족의 영향력은 특히 부모-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 들어, 연구자들은 가족 맥락에서 습득되는 행동들이 또래 맥락으로 전이되는 메카니즘을 규명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아동의 또래 관계를 연결하는 메카니즘으로서 정서의 encoding decoding 기술, 정서조절 기술, 인지 표상, 귀인, 문제 해결 기술 등의 구체적 과정이 가설화되어 검증되고 있다(Parke et al., 1989, for review).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와 또래 관계가 연결되는 잠재적 메카니즘으로서 대인 관계에 대한 표상 모델의 역할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족내에서의 사회적 관계의 경험이 또래 관계로 전이되는 데 있어 인지 표상 모델이 그 매개 역할을 한다는 관점은 애착 이론(Bowlby, 1969/1982), 각본(script) 이론(Nelson, 1986; Schank & Abelson, 1977), 사회정보처리 모델(Dodge, 1986; Crick & Dodge, 1994) 등에 바탕을 둔다.

애착 이론가들은 부모와의 초기 애착 관계가 아동의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메카니즘으로서, Bowlby에 의해 제시된 내적 실행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의 개념을 가정한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민감하고 지지적인 반응을 얻지 못한 아동은 자신에 대해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부모에 대해서는 믿지 못할 존재로 그 실행모델을 발달시키게 되며 사회적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기대를 형성하게 된다고 본다. 부모와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실행모델은 다른 사회적 관계 속으로 전이되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고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반응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Ainsworth, 1989; Bowlby, 1973;

Sroufe & Fleeson, 1986). 그런데 이러한 실행 모델이 어떻게 사회적 상황에서의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구체적 과정에 대해서는 Bowlby가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았다.

사회정보처리 모델은 개인이 특정 사회적 상황을 접할 때 그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행동으로 실행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 과정에서 표상 모델의 역할을 제시한다(Crick & Dodge, 1994; Dodge, 1986). 아동은 가족이나 또래로부터 겪은 과거 경험을 기억 속에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며 이 데이터 베이스는 곧 사회적 세계에 대한 표상이 되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사회적 단서를 해석하고 특정한 반응들이 생성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또래로부터 거부를 당해온 아동은 새로운 다른 또래의 중립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적대적으로 해석하고 그 아동과의 관계를 회피하거나 그만두려고 하며 따라서 그들에 대해 공격적이거나 회피적으로 반응해버릴 것이라고 본다. 사회 정보처리 모델에 의해 유도된 가설을 검증하는 데 있어 아동의 귀인, 목적, 전략, 결과에 대한 예상 등의 요소들은 사회적 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표상의 주요 요소가 된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 의해 지지되었다(예 : Chung & Asher, 1996; Dodge et al., 1986; Erdley & Asher, 1996; Rose & Asher, 1996).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은 경험이 또래 상호작용에서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애착이론과 사회정보처리 모델을 통합하여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고 본다. 즉, 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표상모델을 통하여 또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애착

이론에서의 주요 명제가 되며, 또한 그 표상모델이 특정 사회적 상황에서 단서를 해석하여 행동으로 이행되기까지 표상의 요소들이 처리되는 과정은 사회정보처리모델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부모와의 경험이 이후의 또래 경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의 표상의 역할은 이러한 이론들의 견고한 개념적 토대 위에 잘 설명되어 있지만 실제로 인지표상의 이러한 매개적 역할을 경험적으로 입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또래에 대한 아동의 표상을 특정한 방향으로 형성시키고 이러한 표상은 다시 또래관계에서의 아동의 행동 양식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몇몇 분리된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Rabiner와 그 동료들은 아동이 자신의 부모에 대해 지지적이고 수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낯선 또래에 대해 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며(Rabiner, Keane, & MacKinnon-Lewis, 1993)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상호작용행동을 보이는 아동일수록 아는 또래와 모르는 또래에 대해 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래로부터의 수용도가 낮으며 공격적인 경향이 있다(MacKinnon-Lewis, Rabiner, & Starnes, 1999)는 것을 발견했다. Cassidy와 동료들은 아동이 그들의 부모에 대해 더 거부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낯선 또래와 잘 아는 또래의 행동에 대해 더 적대적인 귀인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Cassidy, Kirsh, Scolton, & Parke, 1996). 또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갈등상황에서 적대적인 목적과 전략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는 아동은 또래 수용도가 낮으며 친구관계의 질이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Chung & Asher, 1996; Rose & Asher, 1999).

이처럼 몇몇 선행연구들이 가족-또래 연계성

의 본질을 인지적 양상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지만, 부모와의 경험이 또래에 대한 인지표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또다시 그것이 어떻게 또래 관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여전히 좀 더 포괄적이면서도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애착이론과 사회정보처리 모델에 의해 유도된 가설 즉, 부모의 상호작용 방식은 부모에 대한 아동의 표상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또래에 대한 아동의 표상으로 일반화되어 또래 관계에서의 아동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데 있다.

이 가설을 검증하는 구체적인 과정으로는 우선, 부모의 상호작용 방식이 부모에 대한 아동의 표상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며, 더 나아가 아동은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상호작용 방식에 따라 각 부모에 대한 표상을 별도로 형성하는지 아니면 한 쪽 부모의 상호작용 방식은 다른 쪽 부모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쳐 아동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해 비슷한 표상을 갖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것은 애착이론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중의 하나인, 한 아동이 여러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내적 실행 모델을 어떻게 조직화하는지에 관한 논점(Howes, 1999를 참고할 것)과 관련된다. 한 영아가 여러 양육자와 각기 다른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몇몇 연구(예 : Belsky & Rovine, 1987; Main & Weston, 1981)가 있었지만, 어머니-아동과 아버지-아동 관계 사이에서는 애착의 질(즉, 관계에 대한 아동의 표상)이 일치된다는 실제적인 증거가 제시되어 있다(예 : Fox, Kimmerly, & Schafer, 1991; Steele, Steele, & Fonagy, 1996; van Ijzendoorn & Dewolff, 1997).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호작용 방식은 아동이 각 부모에 대한 표상

을 형성할 때 서로 보상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은 아동이 그들의 모든 애착 관계를 하나의 표상으로 통합할 것이라는 통합적 조직화 모델의 가정과 그에 대한 몇몇 경험적 지지에 기초한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는 두 번째 단계로, 부모에 대한 표상 모델이 또래 관계에 영향을 주되 이는 또래에 대한 표상모델을 매개로 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Cassidy와 동료들(1996)

이 제시했듯이, 부모의 행동 그 자체보다 부모의 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아동의 사회 정보처리 기술과 또래 관계를 더 잘 예측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경험이 아동의 또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검증함에 있어 부모에 대한 아동의 표상이 또래에 대한 표상으로 전이되어 아동의 또래 관계로 연결되는지를 검증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미국 서부의 한 공립학교 교육구내의 9개 학교에 재학중인 5학년 아동 119명(남아 63명, 여아 56명)이었으며, 그들 중 47명의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어머니 47명, 아버지 47명)도 포함되었다. 이들은 사회성 발달 종단적 연구 표집의 일부분으로서, 이들이 유치원에 재학중일 때 1000여명의 유치원 아동들의 또래 수용도를 평가하여 수용도가 낮은 아동부터 높은 아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재표집하는 절차를 거쳐 선정된 아동들이었다. 표집 아동의 가족의 수입은 저소득에서 중상류의 수입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미국내의 중산층 평균소득수준에 가까운 가족이 가장 많이 표집되었다. 부모의 평균 교육연수는 어머니의 경우 12.6년, 아버지의 경우 13년이었다. 표집의 50%가 유럽계 미국인이었고, 40%가 라틴계 미국인이었으며, 나머지 10%는 아프리카계와 동양계의 미국인이었다.

2. 연구절차

아동이 4학년이었을 때 그들의 부모와 함께 학교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상호작용 과제에 참여하여 녹화되었고 인터뷰와 질문지 작성에 참여하였다. 일년 후 아동이 5학년이 되었을 때 이 아동을 포함한 전체 연구대상 아동이 부모와 또래에 대한 표상을 측정하기 위한 인터뷰와 친구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 작성에 참여하였다. 또래 수용도는 그들이 포함된 학급내에서 학급의 모든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부모 상호작용 데이터는 47명의 아동들의 부모에 한해서만 입수되었기 때문에 분석에서 연구가설을 총체적으로 포함한 모델을 검증하지 못하고 두 개로 분리하여 검증하였다. 즉, 하나는 부모 상호작용 방식이 부모에 대한 아동의 표상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는 종단적 모델이고, 또 하나는 부모에 대한 아동의 표상이 또래에 대한 표상으로 전이되어 이것이 다시 또래 관계로 연결되는지를 검증하는 모델이다. 따라서 전자의 모델은 표본의 크기가 47명이었고, 후자의 모

델에서는 119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부모 상호작용 방식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동과 각각 주어진 몇가지 주제에 관하여 토의하는 동안 녹화되었다. 토의 주제는 Taxonomy of Problematic Situations (Dodge, McClasky, & Feldman, 1985)에서 채택된 것으로서 각 가족구성원들이 주어진 특정 상황을 다루는 데 있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지를 질문지로 평정하여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어려움을 느낀다고 평정된 상황들을 7가지 선정하여 이를 토의 주제로 삼았다. 비디오로 녹화된 토의 상황은 Rueter와 Conger(1995)에 의해 개발된 평정 체계에 따라 부모상호작용 방식이 다섯 가지 차원에 대해 평정되었다: 독립성 격려(아동이 문제해결과 의사 결정에서 자신감과 주도성을 가지도록 강화하는 정도), 온정/지지(아동이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느끼도록 격려하거나 관심을 보이며 신체적으로 어루만지거나 가까이 다가가는 등의 표현을 하는 정도), 긍정적인 반응(아동이 보이는 적절한 행동이나 반응에 칭찬하거나 미소를 보이는 정도), 귀납적 추론(행동의 결과에 초점을 두며, 추론을 통해 갈등을 피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에 초점을 두는 정도), 지배성(부모가 아동의 의견이나 행동을 통제하거나 강요하려고 하는 정도). 모든 주제에 대한 토론을 관찰한 후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다섯가지 차원에 대한 두 명의 관찰자간 신뢰도는 .78에서 .91(평균 .85)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료를 각기 별도로 주성분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경우 모두 5개의 차원이 하나의 종합 점수로 축소되었다:

긍정적 상호작용(어머니 아버지 각각 Cronbach alpha=.86, .83). 긍정적 상호작용은 지배성을 제외한 4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배성은 요인부하량이 낮아 제외되었다. 따라서 긍정적 상호작용의 점수는 그 4개의 차원에 대한 평정값을 평균내어 산출되었다.

2) 부모에 대한 아동의 표상

부모에 의해서 문제가 유발되나 그 의도가 애매모호한 두 가지 가설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아동의 귀인, 목적, 전략 등을 폐쇄형 질문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목적(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니?)과 전략(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 같니?)에 대해서는 예비조사를 통해 선정한 6가지 가능한 반응 유형을 제시하여 각각의 유형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5점 척도로(1점=전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 ~5점=분명히 그렇게 할 것 같다) 평정하게 되어 있다. 의도에 대한 귀인은 2가지 대안(일부로, 잘 모르고)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아동은 엄마와 아빠가 주인공인 경우 각각에 대해 따로 반응하여 모두 4가지 상황에 대해 응답하였다.

목적과 전략 변인의 수를 축소하기 위해 두 이야기에 대한 12가지 목적과 전략 각각에 대해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경우 공격/회피 목적과 공격전략이, 아버지의 경우 공격/회피 목적과 관계유지 목적, 공격 전략이 추출되었다. 각각의 요인에 부하된 항목에 대한 아동의 평정을 평균내어 각 요인의 점수를 산출하였다. 귀인점수는 고의성을 지적한 경우는 1점, 우연한 사고로 귀인하는 경우는 2점으로 하여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평균내어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귀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추출된 각각의 목적과 전략 요인들의

신뢰도(Cronbach alpha)는 .71에서 .81사이였다 (평균 .76).

3) 또래에 대한 아동의 표상

또래가 포함된 가설 상황은 부모가 포함된 상황과 같은 구조의 애매모호한 문제 유발 상황이 두 가지 제시되었으며, 별도로 또래와의 이해관계가 엷히는 갈등 상황 두 가지가 제시되었다. 애매모호한 문제 유발 상황에 대한 반응 항목은 부모에 대한 표상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된 것과 같았다. 같은 구조의 이야기와 반응 항목을 포함한 것은 어머니, 아버지, 또래에 대한 아동의 표상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래와의 갈등상황은 아동의 욕구와 친구의 욕구가 상충하는 상황이다(예 : 친구가 아동에게 학교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고 제안한 상태에서 같은 반에 있는 정말 똑똑한 아이가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고 제안한다..).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목적과 전략에 대해서만 평정하였고 반응 항목은 애매모호한 문제 유발 상황에 대한 것과 유사하였다. 부모에 대한 표상을 측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과 전략변인의 수를 축소한 결과, 애매모호한 문제 상황의 경우 관계 목적과 공격 전략이 추출되었고(신뢰도는 각각 .82, .77), 갈등상황의 경우 관계유지 목적, 공격 목적, 공격 전략이 추출되었다(신뢰도는 각각 .32, .73, .81). 갈등상황에서의 관계유지 목적 요인의 신뢰도가 낮았으나 개념적 연결성(친구로 잘 지내고 싶은.,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은.) 때문에 추후의 탐색적 분석에 그대로 포함시켰다. 점수화 방법은 부모에 대한 표상의 경우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였다.

4) 아동의 또래 수용

사회성 측정 면접(Asher, Singleton, Tinsley, & Hymel, 1979) 방법을 이용하여 수용정도를 측정하였다. 즉, 학급의 모든 아동들은 함께 놀거나 시간을 같이 있고 싶은 같은 반 아이 세 명을 지명하도록 했다. 연구 대상 아동이 지명 받는 수를 각 학급내에서 표준화하여 또래 수용 점수를 산출하였다.

5) 친구관계의 질

Friendship Quality Questionnaire(FQQ : Parker & Asher, 1993)로 측정하였으며, 이 질문지는 연구대상 아동의 특정 친구에 대한 항목과 그 친구와의 관계에 관한 항목 등 40개의 진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진술과 일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원래 Parker와 Asher의 연구에서는 6개의 하위 차원(갈등, 친밀한 교환, 도움, 갈등 해결, 관심과 인정, 동반)으로 나뉘어질 수 있음을 제시했지만, 최근 Rose와 Asher(1999)는 요인분석을 통해 두 개의 하위 차원으로 축소하여 평가할 수 있음을 보였고, 이론적으로도 친구관계는 긍정적, 부정적 양상으로 대별될 수 있음(Berndt, 1996)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변인의 수를 축소하기 위해 두 개의 하위 요인을 추출할 것을 미리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40개의 항목 중 27개의 항목이 두 개의 요인 속으로 포함되었고 나머지 13개 항목은 두 요인 모두에 부하되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Parker와 Asher의 하위 차원 중 갈등 요인에 포함되는 7개 항목을 제외한 33개 항목 중 21개 항목이 첫 번째 요인(eigenvalue=9.31)에 부하되었고, 갈등 요인의 원래 7개 항목 중 1개를 제외한 6개의 항목이 두 번째 요인(eigenvalue=3.61)에 부하되

었다. 긍정적 친구관계의 점수는 요인분석에서의 첫 번째 요인점수였으며, 갈등적 관계는 두 번째 요인 점수였다. 긍정적 친구관계의 신뢰도

(Cronbach alpha)는 .93, 갈등 관계의 신뢰도는 .82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성차에 관한 예비분석 결과,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아동의 표상 중 일부분에서 성차가 있었고 또래 관계 변인과 부모 상호작용 변인에서는 성차가 없었다. 애매모호한 문제 발생 상황에서 여아들은 남아들보다 또래에 대한 관계유지 목적에 더 높게 반응하였으며($t=-2.29, p<.05$, 여아 $M=4.33$, 남아 $M=3.93$) 어머니에 대한 공격/회피 목적에 더 높게 반응하였다($t=-2.12, p<.05$, 여아 $M=1.61$, 남아 $M=1.29$). 남아들은 여아들보다 애매모호한 문제 발생 상황에서 또래에 대해 공격적 전략에($t=2.07, p<.05$, 여아 $M=1.55$, 남아 $M=1.87$) 더 높게 반응하였다. 표집 크기가 크지 않았으므로 이후에 제시된 모든 분석은 여아와 남아를 분리하여 분석하기보다는 부분상관분석이나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아동의 성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수행되었다.

1. 부모의 상호작용 방식을 통해 예측되는 부모에 대한 아동의 표상 모델

일년 전에 측정된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호작용 방식이 각 부모에 대한 아동의 표상모델을 예측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가 아동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했을수록 아동은 어머니에 대해 공격/회피 목적($r=-.44, p<.001$)과 공격 전략($r=-.32, p<.05$)에 더 낮게 반응하였다. 모든 아동이 두 가설 상황속에서의 어머니 행동을 비의도적이라고 귀

인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상호작용과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귀인간에는 상관계수가 산출될 수 없었다. 아버지의 경우, 긍정적 상호작용을 했을수록 아동은 아버지에 대해 공격/회피 목적에 더 낮게 반응했으며($r=-.34, p<.05$), 아버지에 대해 긍정적 귀인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r=.28, p<.06$). 아버지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아버지에 대한 아동의 관계유지 목적 및 공격 전략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모가 아동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했을수록 아동은 부모에 대해 덜 부정적인 표상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될 수 있으며 이런 현상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 강할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상호작용은 아버지의 상호작용과 독립적이어서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도 유의하지 않았으나($r=.02, n.s.$), 아동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갖고 있는 표상요소들간의 상관관계는 높았다(평균 $r=.84(.83-.86)$, $p<.0001$)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아동이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서로 다른 상호작용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 아동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유사한 표상을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상호작용 방식은 다른 한 쪽 부모의 상호작용 방식이 그 부모에 대한 아동의 표상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중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으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호작용

방식의 주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그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가 아동의 부모에 대한 표상에 유의하게 기여하는지를 검증하였다(Cohen & Cohen, 1983).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제한 상태에서 그 두 변인의 상호작용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공격/회피 목적에 각기 8%와 13%를 더 설명했으며,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공격 전략에는 각기 6%와 9% 기여했고,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 귀인에는 변량의 11%를 더 설명했다. 이런 결과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어느 한 쪽 부모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아동의 표상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중재하여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 아동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해 형성한 표상은 서로 유사했을 수 있다.

2. 부모에 대한 표상과 또래에 대한 표상간의 관계

부모에 대한 표상은 애매모호한 문제 발생 상황에서만 측정되었고 또래에 대한 표상은 애매모호한 문제 발생 상황과 갈등 상황, 둘 다에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두 변인간의 상관분석은

두 가지 가설 상황에 따라 따로 이루어졌다.

<표 2>에서 제시된 것처럼,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측정된 부모에 대한 표상과 또래에 대한 표상간의 상관분석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공격/회피 목적에 높게 반응할수록 또래에 대한 관계유지 목적에 더 낮게 반응하였고, 아버지에 대한 관계유지 목적에 높게 반응할수록 또래에 대한 관계유지 목적에도 높게 반응하였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공격 전략에 높게 반응할수록 또래에 대한 공격 전략에도 높게 반응하였다. 갈등 상황에서 측정된 또래에 대한 표상과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측정된 부모에 대한 표상간의 상관분석에서도 유사한 패턴으로 부모에 대한 표상과 또래에 대한 표상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3. 부모에 대한 표상과 아동의 또래 관계간의 연결을 매개하는 또래에 대한 표상

<표 2>에서 보듯이, 부모에 대한 아동의 표상과 그들의 또래 관계간의 상관분석 결과, 부모에 대한 표상의 몇 가지 요소가 또래 수용 및 친구관계의 질과 관련되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공격/회피 목적에 대해 높게 반응

<표 1> 부모의 상호작용 방식을 통해 부모에 대한 아동의 표상 모델을 예측하는 회귀분석표 (N=47)

예언변인 (부모의 상호작용 방식)	어머니에 대한 공격/회피 목적			아버지에 대한 공격/회피 목적			어머니에 대한 공격 전략			아버지에 대한 공격 전략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 귀인		
	ΔR^2	β^a	AdjR ²	ΔR^2	β	AdjR ²	ΔR^2	β	AdjR ²	ΔR^2	β	AdjR ²	ΔR^2	β	AdjR ²
1단계 :															
어머니의 긍정성		-.159**													
아버지의 긍정성	.20**			.26***			.19**			.11*			.10*		
2단계 :															
어머니의 긍정성 × 아버지의 긍정성	.08*	1.68*	.26**	.13**	2.18**	.35***	.06*	1.47*	.21**	.09*	1.81*	.13*	.11*	1.97*	.15*

a 여기에 제시된 β 값은 최종단계에서 산출된 값이다. * p<.05, ** p<.01, *** p<.001, **** p<.0001, + P<.10

〈표 2〉 부모와 또래에 대한 표상, 또래 수용, 친구관계의 질간의 상관관계^a (N=119)

	또래에 대한 표상 (애매모호한 문제발생 상황)			또래에 대한 표상 (갈등상황)			또래 수용	친구관계의 질	
	관계유지 목적	공격 전략	긍정적 귀인	관계유지 목적	공격 목적	공격 전략		긍정적 관계	갈등
어머니에 대한 표상									
공격/회피 목적	-.43***	.41***	-.23*	.02	.28**	.22*	-.22*	.05	.07
공격 전략	-.49***	.46***	-.32***	.00	.11	.18*	-.09	.07	.13
아버지에 대한 표상									
공격/회피 목적	-.46***	.44***	-.25**	.02	.39***	.22*	-.26*	.05	.01
관계유지 목적	.33***	-.19*	.13	.28**	.03	-.04	.14	.14	-.19*
공격 전략	-.46***	.47***	-.27**	-.11	.15	.26**	-.07	-.01	-.00
긍정적 귀인	.23*	-.20*	.25**	.08	-.12	-.16	.04	.21*	-.09
또래 수용	.27**	-.19*	.23**	.07	-.16	-.20*		.02	-.05
친구관계의 질									
긍정적 관계	.07	-.04	.09	.31**	-.06	-.19*			-.25*
갈등	-.02	-.07	-.00	-.15	-.00	.05			

a 아동의 성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상관분석임. * p<.05, ** p<.01, *** p<.001, + P<.10

한 아동일수록 또래 수용도가 낮은 편이었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관계유지 목적에 높게 반응할수록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보였다. 부모에 대한 표상과 또래 관계간의 이러한 연결이 또래에 대한 아동의 표상에 의해 매개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Baron & Kenny, 1986 참조). Baron과 Kenny의 매개 논리에 부합하는 두 가지 사례, 즉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공격/회피 목적과 아동의 또래 수용간의 연결이 애매모호한 문제발생 상황에서 측정된 또래에 대한 아동의 관계유지 목적에 의해 매개되었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공격/회피 목적간에 상관정도가 높기 때문에 예언변인간의 공선성을 피하기 위해, 회귀분석에서 어머니 관련 변인과 아버지 관련 변인을 따로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동의 성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회귀등식에 첫 번째로 성변인이 투입되었고, 그 다음에 매개변인을 투입하

여 이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예언변인이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표 3〉 부모에 대한 표상과 또래 수용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또래에 대한 표상을 검증하는 회귀분석표^a (N=119)

종속변인/예언변인	ΔR^2	β	df
또래 수용 /			
1단계 : 또래와의 관계유지 목적 ^b	.08**	.23*	2,90
2단계 : 어머니와의 공격/회피 목적	.01	-.12	3,89
1단계 : 어머니와의 공격/회피 목적	.05*		
2단계 : 또래와의 관계유지 목적	.04*		
또래 수용/			
1단계 : 또래와의 관계유지 목적 ^b	.08**	.21*	2,90
2단계 : 아버지와와의 공격/회피 목적	.02	-.16	3,89
1단계 : 아버지와와의 공격/회피 목적	.07*		
2단계 : 또래와의 관계유지 목적	.03*		

a 모든 회귀식에 아동의 성이 통제되었음.

b 애매모호한 문제발생 상황에서의 관계유지 목적 * p<.05, ** p<.01, +p<.10

검증되었다. 또한 예언변인과 매개변인간의 공변량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확신하고자, 매개변인과 예언변인의 투입 순서를 바꾸어서 분석해보는 절차도 거쳤다(<표 3> 참조).

회귀분석 결과, 어머니에 대한 공격/회피 목적은 또래에 대한 관계유지 목적을 통제된 상태에서는 또래 수용을 예측하지 못했다. 반면, 어머니에 대한 공격/회피 목적을 통제된 상태에서 또래에 대한 관계유지 목적 변인은 여전히 또래 수용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에 대한 공격/회피 목적과 또래 수용간의 관계는 또래에 대한 관계유지 목적에 의해 매개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 아버지에 대한 공격/회피 목적과 또래수용간의

관계가 또래에 대한 관계유지 목적에 의해 매개되었는지를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경우와는 다소 다른 패턴을 보였다. 어머니 변인의 경우처럼 또래에 대한 관계유지 목적이 통제된 상태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공격/회피 목적이 또래 수용을 예측하지 못했지만, 거꾸로 아버지에 대한 공격/회피 목적이 통제된 상태에서는 또래에 대한 관계유지 목적과 또래 수용간에 이전의 유의하던 관계는 다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에 대한 공격/회피 목적은 또래에 대한 관계유지 목적에 의해 매개되기는 하나, 그 매개효과가 크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잠재적 또래 표상 변인에 의해 매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 내에서의 경험과 또래 관계의 질을 연결하는 매개요인으로서 인지표상의 역할에 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것이었다. 사회정보처리 모델과 애착이론에 기초해, 부모의 상호작용이 부모에 대한 아동의 표상 모델에 영향을 주며, 부모에 대한 표상은 또래에 대한 표상으로 전이되어 아동의 또래 관계의 질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이 가설에 포함된 각각의 관계성에 대해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온정과 지지, 긍정적 반응, 독립성 격려, 귀납적 추론 등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할수록 아동은 부모에 대해 더 긍정적인 표상 모델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아동의 표상은 또래에 대

한 표상 및 또래 관계와 연결되어 있었다. 부모와 보다 긍정적 상호작용을 한 아동들은 애매모호한 문제 발생 상황에서 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목적과 전략을 덜 갖는 경향이 있었으며 보다 더 긍정적인 귀인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아동에게 반응적이고 민감한 상호작용을 할수록 아동은 부모에 대해 신뢰감을 갖는 긍정적인 내적 표상 모델을 구성하여 부모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형성하기 쉽다는 애착이론의 명제를 경험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측정된 표상 모델은 정서적인 양상을 포함하는 애착 관련 실행 모델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목적, 전략, 귀인 등의 표상 요소는 사회적 관계와 그 속에서의 경험에 대한 해석 및 기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애착 안정성과 관련되는 인

지적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상호작용과 부모에 대한 아동의 표상간의 관계는 아버지-아동 사이에서보다는 어머니-아동 관계에서 더 뚜렷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부모 상호작용 방식을 측정하는 방법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 상황에 대해 부모-아동간에 토의를 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아버지의 상호작용 방식보다는 어머니의 방식을 더 잘 측정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체적 놀이와 아동의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가 어머니-아동보다는 아버지-아동 관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던 선행연구들(Carson & Parke, 1996; MacDonald, 1987; Parke et al., 1989)을 참조해 볼 때, 아버지에 대한 표상은 언어적 상호작용보다는 신체적인 놀이 동안에 보이는 아버지의 행동에 의해 형성되기 쉬운 것 같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호작용 행동의 본질과 그것의 안정성, 그리고 부모에 대한 아동의 표상 모델의 발달적 양상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미래의 연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에 대한 아동의 표상을 예측하는 것은 아버지-아동보다는 어머니-아동 관계에서 더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어머니에 대한 표상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표상의 발달을 간접하기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최근 애착 이론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인, 가정에서 여러 양육자(특히, 어머니와 아버지)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의 표상모델의 조직화 문제와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호작용 방식은 달랐어도 아동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표상 모델은 유사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런

사실은 아동이 부모에 대해 표상을 형성할 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으며, 또는 어머니에 대한 표상은 아버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표상이 형성되는 것을 중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 조직화 관점 중에서, 아동에게 상대적으로 더 의미있는 양육자(대부분, 어머니)에 대한 표상은 다른 양육자에 대한 표상보다 더 영향력있을 것이라는 위계적 모델(Bretherton, 1985)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아동이 각 부모에 대해 형성하는 표상이 어느 한 쪽 부모에 대한 표상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또 다른 결과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호작용 방식은 각 부모에 대한 아동의 표상이 발달할 때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 중 어느 한쪽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양쪽 부모의 상호작용 방식이 모두 아동의 인지표상과 연결된다고 가정하는 통합적 조직화 모델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과 관련되는, 부모에 대한 아동의 표상은 또래나 친구에 대한 그들의 표상 및 또래 관계(또래 수용, 친구관계의 질)와 관련되어 있었다. 부모에 대해 더 부정적인 표상, 즉 더 공격적인 목적과 전략을 가지며 덜 긍정적인 귀인을 하였던 아동들은 또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더 부정적인 표상을 가졌다. 더욱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더 공격적거나 회피적인 목적을 보였던 아동들은 또래에 의해 수용되는 정도가 더 낮았다. 반면, 아버지에 대해 더 관계적인 목적과 긍정적 귀인을 했던 아동들은 그들의 친구관계에 대해 더 친밀하게 나누고 돕고 관심을 가지며 갈등은 덜한 것으로 보고하는 등 더 긍정적인 친구

관계를 보고했다. 이전 연구자들(Cassidy et al., 1996)이 주장했듯이, 이와 같은 결과는 대인관계에 대한 인지 표상 모델은 그 개인 내에서 유지되며 다양한 맥락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부모에 대한 표상과 또래에 대한 표상간의 유의한 관계는 선행연구(Burks & Parke, 1996)의 결과를 반복한다. 부모에 대한 표상과 또래에 대한 표상 간의 상관 관계(공유 변량)는 부모에 대한 표상이 또래에 대한 표상으로 전이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타난 상관성을 통해 인과 관계를 설정할 때 이러한 인과 관계의 방향이 그 역 방향보다 더 이치에 맞기 때문이다. 이것은 초기 가족 관계에서 구축된 대인 관계에 대한 표상 모델은 타인의 태도와 반응에 대해 일정한 기대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기대는 또 다시 가족내에서의 관계와 유사한 패턴으로 친구 관계를 재창조한다(Shulman & Collins, 1995; Sroufe & Fleeson, 1986)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에 대한 표상, 또래에 대한 표상, 또래 수용 및 친구관계의 질간의 상호연결성을 토대로 그 매개과정을 분석한 결과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표상과 또래 수용간의 연결이 또래에 대한 표상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부모에 대한 긍정적 표상이 또래에 대한 긍정적 표상으로 전이되고, 이것

은 다시 긍정적 또래 관계에 기여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가족-또래 연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동의 표상이 그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서 또래 관계 중 또래 수용과는 달리 친구관계의 질과 부모에 대한 표상, 또래에 대한 표상 간에 각기 상관이 있었지만 세 변인의 동시적인 상관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표상과 친구관계의 질을 매개하는 또래 표상의 역할은 검증되지 못했다. 따라서 좀 더 큰 표집을 이용하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표상을 측정하여 이 결과를 반복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애착 이론과 사회정보처리 이론의 주요 명제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표상이 발달하며 이러한 표상 모델이 다시 또래 유능성에 기여한다는 점과, 표상 모델이 목적, 전략, 귀인 등 표상 모델의 특정한 양상을 통해 특정 행동과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사회정보처리 모델의 명제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부모 자료가 한정됨으로써 연구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완전한 경로 모형을 적절하게 검증하지 못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가족과 또래 체계의 연계성에 내재된 그 과정의 본질을 좀 더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Ainsworth, M. D.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Asher, S. R., Singleton, L. C., Tinsley, B. R., & Hymel, S. (1979). A reliable sociometric measure for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79, 443-44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

- 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lsky, J., & Rovine, M. (1987). Temperament and attachment security in the strange situation : An empirical rapprochement. *Child Development*, 58, 787-795.
- Berndt, T. J. (1996). Exploring the effects of friendship quality on social development.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346-365).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wlby, J. (1969/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 Attachment*. New York :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 Vol. 2. Separation*. New York : Basic Books.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3-35.
- Burks, V., & Parke, R. D. (1996). Parent and child representations of social relationships : Linkages between families and peers. *Merrill-Palmer Quarterly*, 42, 358-378.
- Carson, J. L., & Parke, R. D. (1996). Reciprocal negative affect in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children's peer competency. *Child Development*, 67, 2217-2226.
- Cassidy, J., Kirsh, S., Scolton, K. L., & Parke, R. D. (1996). Attachment and representations of pe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2, 892-904.
- Cohen, J., & Cohen, P. (1983). *Applied multiple regression/ 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 Erlbaum.
- Chung, T. & Asher, S. (1996). Children's goals and strategies in peer conflict situa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42, 125-147.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 74-101.
- Dodge, K. A. (1986). A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J. Garber & K. A. Dodge (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pp. 159-181).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dge, K. A., McClaskey, C. L., & Feldman, (1985). A situational approach to the assessment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344-353.
- Dodge, K. A., Pettit, G. S., McClaskey, C. L., Brown, M. M. (1986).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1(2, Serial No. 213).
- Erdly, C. & Asher, S. (1996). Children's social goals and self-efficacy perceptions as influences on their responses to ambiguous provocation. *Child Development*, 67, 1329-1344.
- Fox, N. A., Kimmerly, N. L., & Schafer, W. D. (1991). Attachment to mother/attachment to father : A meta-analysis. *Child Development*, 62, 210-225.
- Howes, C. (1999). Attachment relationships in the context of multiple caregivers.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 Theory, research, & clinical applications* (pp. 89-111). New York : Guilford.
- MacDonald, K. (1987). Parent-child physical play with rejected, neglected, and popular boy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705-711.
- Main, M., & Weston, D. R. (1981). The quality of toddlers relationships to mother and to father : Related to conflict and the readiness to establish new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2, 932-970.

- McKinnon-Lewis, C., Rabiner, D., & Starnes, R. (1999). Predicting boys' social acceptance and aggression : The role of mother-child interactions and boy's beliefs about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35, 632-639.
- Nelson, K. (1986). Event knowledge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K. Nelson (Ed.), *Event knowledge : Structure and function in development*. Hillsdale, NJ : Erlbaum.
- Parke, R. D., Cassidy, J., Burks, V., & Bhavnagri, N. (1989). Alternative pathways : Modes of family-peer relationships. In S. Asher & J.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338-361).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Rabiner, D. L., Keane, S. P., & MacKinnon-Lewis, C. (1993). Children's beliefs about familiar and unfamiliar peers in relation to their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236-243.
- Rose, A. J. & Asher, S. R. (1999). Children's goals and strategies in response to conflicts within a friend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5, 69-79.
- Rueter, M. A. & Conger, R. D. (1995). Interaction style, problemsolving behavior, and family problem-solving effectiveness. *Child Development*, 66, 98-115.
- Shulman, S., & Collins, W. A. (1995). Epilogue : Close relationships over time-coherence and development, change, and adaptation. In S. Shulman (Ed.), *Close relationships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Vol. 7.
- Sroufe, L. A., & Fleeson, J. (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W. Hartup & Z. Rubin (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pp. 36-54), Hillsdale, NJ : Erlbaum.
- Steele, H., Steele, M., & Fonagy, P. (1996). Associations among attachment classifications of mothers, fathers, and their infants. *Child Development*, 66, 583-596.
- van Ijzendoorn, M. H., & deWolff, M. S. (1997). In search of the absent father : Meta-analysis of infant-father attachment. A rejoinder to our discussants. *Child Development*, 68, 604-609.